



예레미야 애가

3장 고통의 ABC

- 1-6(אב) 고통의 원인
- 7-18(גה) 현재 상태
- 19-24(וז) 탈출구
- 25-42(טכ) 해야 할 반응들
- 43-54(פצ) 변함없는 상황
- 55-63(קש) 드디어! 전환점
- 64-66(ת) 공의를 간절히 간구

4장 본토에 남은 자들의 고통

- 1-2 시온 아들들의 멸망
- 3-10 시온 백성들의 멸망
- 11-16 선지자, 제사장의 멸망
- 17-20 왕의 멸망
- 21-22 시온 딸들, 예돔의 멸망

5장 공동체의 간구

- 1 하나님의 돌보심 간구
- 2-18 남은 자, 고통의 실상
- 19-22 하나님의 자비 간구

✓ 애가서 화자의 감정과 고통

버림받음, 신분/지위의 변화,
모든 것으로부터의 단절, 조롱,
위로자 없음. 정신적 고통,
극복 불가로 느껴지는 아픔,
바닥을 친 심리/영/감정/자존감,
자신이 쓰레기/배설물처럼 느껴짐,
시체 같은 삶, 에워싸임,
철저히 무산되는 모든 계획들,
육체적인 고난, 굴욕, 절박함,
물질적 궁핍, 찢먹이들의 고난,
하나님이 나를 '대적'처럼 여김,
물이 턱밑까지 차오르는 느낌.

참고도서

행복한 영성수련 (김화영)
한권으로 마스터하는 구약
두란노 How 주석, 다시 일어서는 묵회

예레미야 애가서의 문학 장르는 '시'입니다.

애가서가 쓰인 방식은 매우 독특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전혀 알아볼 수 없지만,
원서에는 각 구절 첫 단어들이 히브리어 알파벳순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Acrostic 배열방식).

1,2,4장은 각절 첫 글자를 22개 히브리어 알파벳순으로,

3장은 66절이 3절씩 22개 히브리어 알파벳순으로,

5장은 알파벳순은 아니지만, '22'라는 절수를 맞추고 있습니다.

즉, 애가는 세밀한 계획 하에, 의도를 가지고 작성되었습니다.

애가는 '시' 장르를 통해 슬픔을 최대한 강화해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과 감정에 휩쓸리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손댈 수 없이 무너져 내리는 일상 속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고통의 A.B.C를 뚜벅뚜벅 걸어가게 합니다.

A-Z까지 작은 것 하나도 넘기지 않고 꼼꼼히 살피게 합니다.

고통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객관화할 때 '내면의 무질서'가
'질서 있게 배열'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죄의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의 참회과정이 필요합니다.

관계된 모든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상처가 아문 후에도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죄는 공식에 대입하듯 기계적으로 종료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알파벳 A부터 Z까지, 시작되고 끝나고, 다시 시작되고 끝나고,

애가서 1-5장까지 이 과정이 몇 번씩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은 끝나는 듯 다시 시작되기도 합니다.

즐거움의 대상이었던 것이 도리어 굴레임을 발견합니다.

멀리 간 시간과 거리만큼 원점을 향한 귀환도 멀고 험합니다.

그럼에도 진지한 반복의 끝에 반드시 소멸의 순간이 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시30:5).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3:40)’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의 ABC를 차근차근 밝어나갔습니다.

죄를 분명히 파악하고 인정했습니다.

심판과 징계는 하나님과 백성이 맺은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은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회복과 자비를 간구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언약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갈 길을 보이십니다.

언약으로 인해 하나님은 경로를 이탈한 우리에게 바른 길 또한 보이실 것입니다(시편89편).

‘고통은 회개를 촉구하는 확성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때, 하나님은 우리들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십니다.

✓ 애가 3장으로 살피는 Check List

- ❶ 현재 상태는 어떠한가?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 ❷ 탈출구가 있을까? 있다!
- ❸ 우리의 행위를 낱알이 조사하자(양심적/의식적 성찰).
- ❹ 나의 감정, 나의 상황
- ❺ 하나님의 말씀 듣기
- ❻ 간절한 간구, 기도

✓ 양심적 성찰, 의식적 성찰

나의 고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일까?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양심적 성찰과 의식적 성찰입니다.

양심적 성찰은 주로 표면으로 드러난 원인을 살피는 방법입니다.

무엇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데서 오는 죄, 양파로 치자면 가장 ‘겉껍질’에 해당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살필 때 대부분 제일 처음 떠오르는 행위나 생각 등입니다.

한편, 의식적 성찰은 좀 더 은밀한 내면적 요소를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양파를 한 겹 한 겹 벗겨 나가며 그 같은 언행을 하게 된 진짜 원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일례로, 가족이나 지인, 교우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물어봅니다.

문제가 생기게 된 ‘직접적인’ 사건은 무엇이었나요?

그 일과 관련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것이 왜 내게 문제가 되었나요?

당시 그 사람/말/사건/분위기 등에서 느낀 나의 감정은?

왜 그렇게 느꼈나요? 그 문제에 특히 예민한 이유는? 일회적인가요, 반복적인 감정인가요?

그 문제/감정은 언제 시작된 것인가요? 그 감정을 처음 불러일으킨 사람은 누구인가요? 등등.

양파껍질을 벗겨 나가다 보면 진짜 내 마음의 상처, 죄, 고통의 원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행하게 된/ 행하지 않게 된 진짜 원인을 만나게 됩니다.

표면적 원인과 기도 제목은 눈앞의 대상이나 문제처럼 보이지만

좀 더 내면적인 원인이나 기도 제목은 다른 장소/다른 시기/다른 대상과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